

쌍용차 해고자 사망, 파업 이후 '30번째' 죽음...신용불량자로 생활고 겪어

입력 2018-06-28 16:07 | 수정 2018-06-28 16:08



(연합뉴스)

경기 평택에서 쌍용차 해고자가 숨진 채 발견돼, 2009년 이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사망자가 30명이 됐다.

27일 오후 3시 50분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한 야산에서 쌍용차 해고자 김모(48)씨가 숨져 있는 것을 김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김씨 가족은 시신 발견 한 시간 전 김씨로부터 문자를 받고 경찰에 자살 의심 신고를 했다. 문자에는 "그동안 못난 남편 만나 고생만 시키고 마지막에도 빛만 남기고 가는구나. 사는 게 힘들겠지만 부디 행복해라.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전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김씨는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복직되지 못한 120명 중 한 명이었다. 재취업에 실패하면서 김씨는 신용불량자가 됐고, 낮에는 공사장 일을 하고 밤에는 운전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지난 2015년 12월 해고자 복직 등 '4대 의제'를 놓고 회사와 합의하면서 복직을 기대했으나 아직 완전한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해고자 45명이 복직됐고, 김씨를 포함한 120명은 복직되지 못한 상태다.

쌍용차 노조는 서울과 평택 등 해고자 복직 촉구 차량 행진 집회를 여는 등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김씨도 숨지기 전 투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거둬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약속한 만큼, 정부도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쌍용차 해고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etoday.co.kr